

致 辭

서울大學校가 이 자리에 옮겨 온 것이 만 3年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가지의 심포지움도 많았읍니다만, 오늘 法學研究所가 主催하는 이 심포지움에 있어서, 좀 여러분 손님들을 모실 체모를 갖추고 이와같은 심포지움을 갖게 된 것은 저로서는 서울大學校의 하나의 轉換期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특히 法學 30周年을 위해 美國에서, 西獨에서, 日本에서 外國學者님들이 오시고, 全國에서 法學界에 關係하시는 教授님들이 한 방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實務를 보시는 法曹界의 여러분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서 지난 날의 法學 30年,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法生活 30年, 혹은 韓國의 法體制·法秩序의 30年의 問題도 같이 생각해 보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社會가 백억불의 輸出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變遷도 많았읍니다만, 그 사이에서의 韓國의인 法秩序의 確立을 위해 努力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10年사이에 우리가 천억불 輸出을 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生活이 過去의 國內에 局限되었던 生活로부터 國際的으로 世界를 自己의 生活圈으로 해서 살게되는 그런 時代로 變할 것이 豫想됩니다. 따라서 國內의인 法生活로부터 國際的인 法生活로, 國內的인 法意識뿐 아니라 國際的인 法意識이 우리 社會 여러 사람을 위해 重要한 것이 되지 않으나 혼자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向後 10年, 向後 30年을 앞에 놓고, 過去의 30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社會의 法意識·法行態 등을 감안하시면서 다음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더우기 우리 서울大學校에서 過去의 여러모로 보아서 많은 業積이 있기 때문에 더우기 뜻이 있으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起點으로 해서, 특히 이 場所에서 다음 30年을 위해서 훌륭한 論結을 내시면서 더욱 많은 法學의 研究·發展에 힘을 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總長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오늘의 題目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韓國에 있어서의 法學教育의 問題도 아울러 생각해 주시면서 討論이 展開되었으면 하는 所望을 表하고 싶습니다. 이는 저 個人的인 所望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問題도 충분히 아울러 생각하시면서 法學 30年의 뜻 있는 심포지움을 進行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美國·日本·西獨에서 와 주신 外國의 教授 세 분에게, 그리고 全國에서 모이신 法學教授 여러분들에게 또 法曹界에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며 感謝를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1978年 3月 17日

서울大學校 總長 尹 天 柱